

# 해양에너지 ‘경영혁신·ESG’ 기업혁신대상 영예

대한상의·산자부 주최·장관상 수상 청정에너지 보급·디지털 전환 주도 탄소배출 저감·사회적 책임 등 호평 광주상의 “산업발전 견인 기업 발굴”

광주·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3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근 경제 위기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1982년 설립 이래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보급해 왔으며, 스마트 기술의 지속적 도입

으로 선제적·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재해 대응력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지열·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국 최초 설치 등 그린 에너지 사업 확대해왔다.

또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Net-Zero 2040 프로젝트 추진 및 ESG 경영 국제인증 등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 및 투명·윤리경영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30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모를 시작해 서류·현장·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기업을 선정했고, 지역에서는 광주상의에서 엄선해 추

천한 ㈜해양에너지가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최종단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혁신을 지속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경영혁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지역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격려받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내년 캐스퍼 전기차 양산 기점 10만대 생산”

윤몽현 GGM 대표이사 취임 경영혁신·해외 수출 등 강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경이로운 경쟁력을 확보한 모범적인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제3대 대표이사 취임식이 7일 오전 본사 상생홀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몽현 신임 대표이사는 “더 강력하고 튼튼한 체질의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범적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생 협력적인 기업문화의 완전 정착 △무결점 품질 확보 △경영시스템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협력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선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기존 고비용 저효율

의 구조를 탈피해 상생 협력적인 기업문화를 구현하는 새로운 통합형 연대형 일자리 모델을 전제로 태어난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회사의 생존 근간인 상생 협력의 기업문화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이를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캐스퍼는 국내에서만 판매됐지만, 앞으로 생산할 캐

스퍼 전기차는 해외로 수출되는 등 우리의 시장이 국내에서 전 세계로 확대된다. 또한 일본이나 유럽 등의 고객은 품질에 대한 요구가 훨씬 까다롭다. 이에 대응해 무결점 품질 확보 시스템을 차질없이 갖춰야 한다”고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영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우리 회사도 캐스퍼 전기차 모델을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하면서 점차 1교대에서 2교대로 생산체제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사고방식과 근무방

식 역시 새로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고 경영시스템도 광주를 벗어나 글로벌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Creative)이고 선진적(Advanced)이고 새롭게(New)게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양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10만대 생산체제로 나아가고 이를 안정화한 뒤에는 20만대 생산체제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상생 협력적인 기업문화 정착, 무결점 품질 확보, 경영시스템 혁신이 그 열쇠”라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 LH 광주전남본부, 작은도서관 성과나눔 공유

아파트 단지내 운영 호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LH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바꾼 곳이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강좌, 교류행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공간이다.

LH는 입주민 22명을 도서관 커뮤니티 매니저로 채용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와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진 LH 주거복지사업처장, 정기원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LH 작은도서관 관장, 커뮤니티 매니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LH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등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집집이 내준 곳, 꿈은 아이들만 꾸나요?, 행복이 걸려 있는 작은도서관, 나의 재능발견 연필스케치 너무 좋았어요, 아로마 오일 수업이 생활의 활력소가 됐어요. 도서관에 오면 이웃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등 다양했다.

곽지혜 기자



“연말 향기로운 꽃 선물하세요”

포인세티아 대형화분을 5만원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가 향기로운 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남산농원’ 팝업을 진행한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소쿠 한다발 1만원, 장미 한다발 2만5000원, 크리스마스 꽃으로 유명한 광주신세계 제공



#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Arirang To The World

2023. 12. 08

Fri 19:30

---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주최  
Jindo  정선군  밀양 

주관  
arirang 아리랑국제방송 全南日報

